

조계종 순천 송광사 주지에 진화스님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순천 송광사 주지에 진화(眞和)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최근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에 진화스님,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에 허운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진화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보성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사미계)했다. 이후 봉은사 주지, 증심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허운 스님은 현문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사미계)했으며 서봉사 주지, 신도시포교 총책특보 등으로 활동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애 오빠 보살핌 보금자리 생겨 너무 좋아요”

해비타트 ‘희망의 집’ 선물받은 화순 다문화 어린이 임연희 양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늘 가족의 포근한 보금자리를 꿈꿔왔던 화순의 10대 소녀에게 탤런트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희망의 집’을 선물했다.

24일 한국해비타트에 따르면 해비타트는 빗물이 새는 수십 년 된 한옥에 살면서도 지적장애 1급을 가진 오빠를 돌보며 글짓기 전국 대상을 받은 임연희(10)양이 새로운 집을 선물받게 됐다. 완공이 완료되는 오는 28일이면 정식으로 입주하게 된다.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임양의 사정을 알고 후원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임양이 쓴 ‘힐내과 우리 오빠’라는 수기를 접하게 되면서다.

전교생이 44명인 화순 사평초등학교 3학년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임양은 지난해 6월 4만 3000여 학생이 참가한 ‘2015 전국 장애 이해 개선을 위한 백일장 대회’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주일보 2015년 6월 8일자 22면>

앞서 이재룡 부부는 해비타트에 ‘희망의 집 짓기’ 후원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으나, 후원금 수혜자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임양의 수기가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혜자로 선정, 6500만원이 투입돼 ‘희망의 집’이 마련됐다.

본인의 솔직한 수기작을 계기로 새로운 집까지 선물 받은 임양의 꿈도 ‘건축가’다. 건물



등하굣길 오빠 손·발 돼 챙겨

지난해 전국 글짓기 대상 받아

이재룡·유호정 부부 후원금 지원

의 절반 이상이 무너진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새집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해비타트는 기존 임양이 살고 있던 한옥 근



오는 28일 완공을 앞둔 임연희양 가족의 집.

처에 있는 임양 아버지 눈에 53㎡ 규모의 아담한 집을 지어줬다. 임양의 방과 오빠들 방, 부모님 안방 겸 거실, 주방, 욕실 등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 손색없다.

해비타트는 또 온라인 모금과 지역 사회의 후원으로 임양 가족이 살아갈 집에 TV, 냉장고 등 살림살이도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

임양은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오빠에 대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부모를 도와 오빠를 응원하며 등하굣길은 물론 평소 집 안팎에서 오빠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집수리를 해야하는 탓에 20여분 거리의 화순을 작은아버지 집에서 오빠와 버스로 등하교를 하며 챙겨야 했다.

그는 수기에서 “사람들은 ‘장애인의 날’만 장애인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오빠는 날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1급 장애아”라며 “엄마, 아빠가 나중에 늙어서 들어가시더라도 제가 오빠를 끝까지 보살피고 챙기겠다”고 밝히 감동을 줬다. 임연희양은 “나중에 엄마, 아빠가 우리 곁에 안 계시더라도 제가 끝까지 남아 이 집에서 오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기자 byj@연합뉴스

방글라데시 간호교수 전남대병원 벤치마킹



방글라데시 간호교수들이 최근 간호업무 벤치마킹을 위해 2년 연속 전남대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SSMCH 간호대학 아바 아드히카리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대병원 제공>

SH Company, 취업준비생에 정장 기증



(주)SH Company(대표 오승하)는 최근 조선대 취업준비생들에게 맞춤형 정장 5벌을 기증했다. (주)SH Company는 맞춤형 정장 전문 브랜드로, 광주에서 Jh테일러 맞춤복 매장 3곳과 대여복 매장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인사

◆동협전남지역본부

◇중앙회 M급 승진 ▲농촌지원단장 박서홍 ▲장성군농정지원단장 이명만

◇중앙회 3급 승진 ▲유통사업단 차장 김인철 ▲농정홍보실 차장 박신규 ▲경영기획단 차장 조상명 ▲경제지원단 차장 조상길 ▲진도군농정지원 단장 심광섭 ▲고흥군농정지원 단장 황동선

◇농협은행 M급 승진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장 장은석 ▲화순군 부지부장 김진갑 ▲북순천지점장 서재식

◇농협은행 3급 승진 ▲경영지원단 차장 장영조 ▲담양군지부 팀장 오승호 ▲목포시점(총) 소장 고영근 ▲보성군점(총) 소장 최우영 ▲여수시지부 팀장 오정순 ▲영암군지부 팀장 김승숙 ▲나주혁신도시 금융센터 점장 강대형 ▲동명동지점 팀장 김영진 ▲신여수지점 차장 백희순

◆광양시

◇5급 승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영수 ▲문화관광과장 김문수 ▲교통과장 임재기 ▲택지조성과장 전보현 ▲투자유치과 기획팀 장형근 ▲안전총괄과 기획팀 정은태 ▲주민생활 지원과장 직무대리 하현정 ▲육통면장 직무대리 김경식

◇5급 전보 ▲총무과장 정홍기 ▲정보통신과장 서복심 ▲교육청소년과장 이병환 ▲사회복지과장 송로종 ▲건설과장 이형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우식 ▲봉강면장 문병환 ▲광영동장 운영학

◆보성군

◇서기관 승진 ▲기획예산실장 김원근 ▲주민복지실장 백인

◇사무관 승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백승훈 ▲노동면장 김명현 ▲조성면장 임오모

◇사무관 전보 ▲총무과장 조계연 ▲환경

생태과장 임준호 ▲안전건설과장 김대주 ▲산림산업과장 전성도 ▲보성녹차사업소장 전명규 ▲의회사무과장 신문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양창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윤용국 ▲보성읍장 임정주 ▲미력면장 최영복 ▲북내면장 최일선 ▲특량면장 박성주 ▲장기교육 송명희

◆범무부

◇교통공무원 서기관 ▲군산교도소장 박광래 ▲장흥교도소장 김영식 ▲정읍교도소장 백흥기 ▲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류재인

◆신용보증기금

◇지점장(1급) 승진 ▲광산지점 유용우 ▲센터장·부지점장(2급) 승진 ▲광주신용보증센터 주동복 ▲순천재기지원센터 유병홍 ▲호남영업본부 한승호 ▲부서장 전보 ▲전주 송동근 ▲군산 김형성 ▲여수 허명석 ▲목포 심중무 ▲익산 최강대 ▲순천 이동엽 ▲정읍 심강훈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 선생 별세

중요 무형문화재 92호 태평무 명예보유자인 강선영 선생이 2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1925년 경기도 안성 출생인 고인은 근대 전통춤의 거장 한성준(1875~1941) 선생의 제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다. ‘태평무’는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는 춤을 재현한 것으로, 한성준 선생이 왕실리 당곳에 독특한 무속장단을 바탕으로 창안해 손녀 한영숙과 제자 강선영에게 가르쳤다. 고인은 2006년에는 미국 등 170개국을 돌며 1천회 이상의 공연을 해 한국 무용가 중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한 기록을 세웠다. 국민훈장 목련장(1973), 문화예술상(1976) 등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전라도 장터 사람들

<13> 담양 대치장터 김정애씨

“장돌뱅이 생활 54년에 남은 건 온몸에 통증뿐이야.”

대치장터에서 만난 김정애씨(73·가평)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김 할머니는 “굳이 알릴 이름도 아니다. 부끄럽다”며 한사코 이름을 밝히기를 꺼렸다. 원래 닭을 취급하는 데 이번에는 제철에 나오는 밤을 팔러 나왔다고 했다.

진도가 고향인 김씨 할머니는 19살 꽃다운 나이

“대형마트 때문에 4남매 먹여살린 5일장 죽어가”

에 비아로 시집과 1남 3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로 비야·장성·사창·대치장터에서 삶을 이어오고 있다.

젊었을 때는 열기와 ‘허리띠 정신’으로 장터에서 버텼다. 그 덕분에 자식들 모두 나름대로 잘 살고 효녀효자로 성장해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옛날에 장사가 잘 될 때에는 하루에 닭을 2~300여 마리는 죽히 팔았다고 한다. 그러나 겹뽕하

면 전염병이 돌아 ‘개점휴업’일 때가 많고, 고객들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골장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종고를 겪는다고 한다.

김씨는 “시골 장이 대형 마트와 할인점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아슬하게도 사람들이 마트에 많이 간다”고 시골 5일 장터의 현실을 말했다.

이날도 장터에는 고객보다 상인이 더 많아 냉기가 감돌았다. 김씨 할머니는 “장사 되는 곳을 찾으려 해도 차를 알고 있는 남편의 병수발 때문에

여러 장터에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치장터에 나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쌓인 마음의 응어리도 풀린다고 한다.

김씨는 “그래서 더 장날이 그립고 기다려진다”며 웃었다.

김씨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라져가는 오일장의 옛 모습이 아쉽고 정이 넘치던 장터 분위기를 더 그립다”며 말을 흐렸다.

이수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학숙

▲이종원·윤금자씨 장남 용우군 김영환(광주시 남구 기획실장)·이미숙씨 장녀 시양양=30일(토) 오후 1시30분 인천시 중구 신흥동 그랜드호텔 웨딩의전당 본관 컨벤션홀. 피로연 22일(금) 오후 6시 광주 시 서구 능성동 마리아주웨딩스퀘어(구 상록회관) 4층 에비뉴를 연회장.

▲오형국(전 광주시 행정부시장)·백궁희씨 차남 동훈군 김대현·심미희씨 차녀 다은양=31일(일) 오후 12시30분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 7층 그랜드홀.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료치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혹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안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 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환 분담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모집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

한 훈생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로,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빛 봉사단은 뜻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은 한글·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

5000.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교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로,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빛 봉사단은 뜻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은 한글·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

중국 베이징 특파원)·범재(광주문화산업지점장·아영씨 부친상 장지명(신안군청)씨 부부상=발인 25일(월) 광주시 북구 그린강레식당 209호 062-250-4455. ▲조은단씨 별세 김성록(비금농협 이사)씨 모친상 최대형(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씨 부모상=발인 26일(화)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061-242-7000.

부음

▲김정환씨 별세 김홍재(파이낸셜뉴스

Notice regarding funeral services for several individuals, including dates and locations for services.